

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2. 8. 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주 문
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그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고, 원활한 쌀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정부에 대해 조속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1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로 시장격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2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.

제안이유

코로나19는 농촌 현장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고, 농산물 판매로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,

2021년은 한파와 저온피해, 연이은 집중호우를 포함한 자연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농촌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음.

또한, 45년 만에 쌀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(8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 가격 : 2021년-22만3천원, 2022년-17만 2천원)하여 농가의 경제적 이중고는 심화되는 상황임.

한편, 대한민국은 2020년 식량자급률이 45.8%로, 쌀을 제외한 밀, 콩 등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밀의 자급률은 0.8%, 콩의 자급률은 30.4%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, 100% 가까운 자급률로 국내 식량 안보를 지지하는 쌀 농가가 붕괴되는 경우, 식량이 무기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.

정부는 「양곡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 쌀 가격 안정을 위하여 3차례의 시장격리(37만톤)를 시행하였으나, 정부의 쌀 가격 조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및 늦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는 가속화되었고, 2022년산 햅쌀이 출하되는 경우 쌀 공급 과잉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.

또한, 쌀 수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은 쌀 재고(전국 42만 8천톤, 전년대비 81%↑)의 증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어, 농협에서 집행 중인 농업인 지원 사업이 축소되고 결국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로 시장격리하고, 중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려는 것임.